

LANDSCAPING TREE



Fagus sylvatica 'Aurea Pendula'
(늘어진 가지와 황금색 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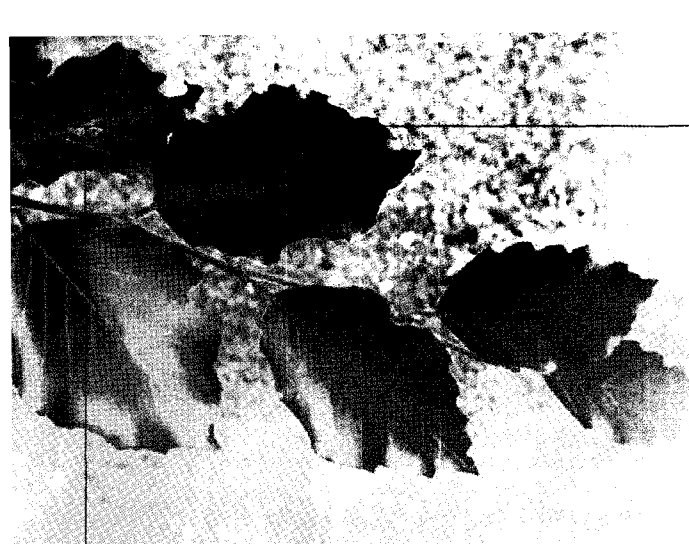
“울릉도 주민을 위기에서 구해 준”

너도밤나무속

(Genus *Fagus*)



Fagus sylvatica



김종근 | 과장

한화리조트 / 춘천 한화수목원 현장

Homepage : www.plusgarden.com

E-mail : loveplant@naver.com

Fagus sylvatica 'Riversii' (진한 자주색을 띠는 잎)

너도밤나무속(*Fagus*) 식물은 우리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북반구지역에 넓게 분포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조경수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너도밤나무를 제외하고는 조경적인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속명인 *Fagus*는 그리스어 phagein(먹는다)에서 유래된 라틴명으로 열매를 식용한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아마 여러분들도 너도밤나무의 이름과 관련된 재미있는 전설을 한번쯤은 들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주 옛날 울릉도에 산신령이 밤나무 100그루를 심지 않으면 큰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그 후 다시 내려와 그 수를 세어보았더니 1그루가 죽고 99그루밖에 없었다고 한다. 산신령이 노해서 벌을 주겠다고 하자 밤나무 옆에 있던 나무가 '나도밤나무'라고 외쳤고, 산신령이 '아하, 너도밤나무로구나'라고 하여 화를 모면했다고 한다. 현재 울릉도 서면 태하동의 너도밤나무 군락은 천연기념물 제50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나리분지 일대에도 너도밤나무 서식 군락이 형성되어 있다.

참나무과(*Fagaceae*)에 속하는 너도밤나무(*Fagus*)속은 잎이지는 큰나무로서 유럽, 아시아 및 북미에 걸쳐 약 10종이 분포하고 있다. 수피는 부드러운 회색을 띠고, 새로 나오는 가지와 잎은 아주 연하며 가을철에는 황금빛 갈색으로 단풍이 든다. 갈색 비늘로 덮여있는 겨울눈은 길쭉하게 뾰족하고 달걀을 닮은 타원 모양의 잎에는 엽맥이 두드러진다. 가을철에는 밤보다는 다소 작고 딱딱지 않은 털수룩한 열매가 벌어지면서 씨앗이 드러나는데, 이는 야생에서 중요한 식량 자원이 되기도 한다.

재배에 있어서 강수량이 700mm 정도면 생육에 큰 지장이 없는데, 여름철 더위가 심한 곳에는 약 1,100~1,800mm 정도가 적당하다. 석회질 및 산성토양에서 모두 무난하게 자라며, 배수가 잘되고 적당한 습도가 있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하지만 겨울철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공중습도가 높고 직접적인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은 곳이 좋다. 또한 산에서는 잘 자라지만 염분에는 다소 약하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도로변에는 식재를 피하는 것이 좋다.

번식에 있어서 씨앗이 건조에 더 강한 성질을 제외하고는 참나무속(*Quercus*)의 번식방법과 비슷하다. 가을에 씨를 따서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다음해 이른 봄 땅에 다시 뿌리면 싹이 잘 트는데, 2~4년 정도 자라면 30~60cm까지 자란다. 삼목 방법은 7월경 삼수를 채취하여 잔가지에 마지막 잎을 남긴 채 절단면의 끝부분을 200ppm IAA에 24시간 처리하거나 발근촉진제를 처리한 후 모래와 토탄을 1:1로 섞은 삼목상에 꽂으면 보통 5~6주내에 뿌리가 내린다. 하지만 호르몬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발근이 잘 되지 않는다. 재배종의 경우 접목법을 많이 이용하는데, 여름 중순경 유럽너도밤나무(*Fagus sylvatica*)의 대목을 이용하여 접을 붙이는 것이 좋다. 또한 어린 묘목은 그늘과 차폐된 곳에서 잘 견디는데 이러한 성질이 번식 후 최초 몇 년 동안 큰 이점이 되며, 동해 방지 차원에서 찬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병충해에 있어서 줄기에는 당분이 많기 때문에 하늘소 등 식해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찰해야 한다. 줄기가 희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으나 분토위에 나무밥을 보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겨울철에 줄기청소 등도 좋은 예방책 중 하나이다. 그 외의 해충으로 진딧물, 깍지벌레 등이 있다. 가장 심각한 질병은 너도밤나무 줄기 질병인데 산호반점 곰팡이에 의해 유발되며, 간혹 흰가루병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잎을 남기지 말고 소각하는 것이 좋으며 정기소독도 병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수형이 수려하고 가을철 단풍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해안가 경관수, 공원수 및 가로수로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팽아력이 강해서 생울타리 및 차폐용으로 뛰어난 소재이며, 실제로 유럽권의 주요 가든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목재는 굳고 치밀하며 질기지만 뒤틀리기 쉬운 단점이 있으며 건축재, 가구재 등으로 사용한다.

국내외에서 조경용으로 이용되는 주요 너도밤나무속 종들과 재배종들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울릉도 특산식물로서 해발고도 300~900m 정도의 산중턱에서 저절로 자라는 잎이지는 키가 큰 나무이다. 줄기는 곧게 자라며 수피는 회갈색이다. 많이 자라면 키가 20m에 달하며 가슴높이의 나무 둘레가 70cm에 이른다. 잎은 어긋나게 붙고 달걀 모양의 타원형이며 가장자리는 물결 모양이다. 잎의 맥은 주맥을 중심으로 10~14개의 측맥이 발달한다. 꽃은 5~6월경에 암수 따로 피는데, 수꽃은 잎겨드랑이에 붙고, 암꽃은 각정이에 싸인 채 새로 난 가지의 잎겨드랑이에서 나와 2~3개가 달린다. 어린 가지에는 털이 있으며, 10월 경 익는 열매는 달걀을 닮은 둥근모양으로 밤송이처럼 가시들로 이루어진 목질의 각정이에 속에 들어 있다. 울릉도를 제외한 한반도의 다른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지만, 한반도 내륙 및 동해안지역에서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 옛날에는 이곳에서도 자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해안 속초

1. *Fagus japonica* var. *multinervis* (마끈한 흰색 수피)
- 1-1. *Fagus japonica* var. *multinervis* (진채수형)
2. *Fagus sylvatica* (나무잎이 진 후의 전체 모습)
- 2-1. *Fagus sylvatica* (이름다운 단풍모습)
- 2-2. *Fagus sylvatica* 'Aurea Pendula' (놀이진 가지와 황금색 잎)
- 2-3. *Fagus sylvatica* 'Dawryck' (하늘을 향해 곧추 자라는 수형)
- 2-4. *Fagus sylvatica* 'Dawryck Gold' (새로 나오는 황금색 잎)
- 2-4-1. *Fagus sylvatica* 'Dawryck Gold' (적당하는 가지)



이남지역을 비롯하여 서해안의 인천 해안가까지 식재가 가능하지만 내륙에서는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Fagus sylvatica* (유럽너도밤나무)

중앙 유럽에서 코카서스지역의 산지에서 자생하는 나무로서 48m까지 크게 자란다. 영명은 Common Beech(일반너도밤나무), European Beech(유럽너도밤나무)라고 하며, 줄기는 부드러운 회색을 띤다. 잎은 길이 11cm, 폭은 6.5cm까지 자라며, 달걀을 닮은 타원 모양으로 가장자리는 말리는 듯한 톱니 또는 이빨모양이다. 엽맥은 5~9쌍으로 부드러운 털이 발달한다. 열매는 꽃자루 상에 2.5cm까지 자라며, 둘러싸고 있는 비늘은 가늘게 형성된다. 유럽너도밤나무의 잎은 두껍고 많기 때문에 유럽너도밤나무 자생지의 숲에 들어가면 햇빛이 조금밖에 들어오지 않아 하층식생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지표면에는 음식에서 견딜 수 있는 식물들 위주로 자란다. 자생지에서의 유럽너도밤나무는 대부분 나무를 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수가 많이 발생하여 후대의 숲을 이루게 되는데, 음식에서도 잘 견디고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Aurea Pendula': 전체적인 수형이 아래를 향해 늘어지며 잎은 황금색을 띤다.

- 'Dawyck': 하늘을 향해 곧게 직립성으로 약 15미터까지 자란다.

- 'Dawyck Gold': 전반적인 특성은 'Dawyck'과 닮았으나 새로운 잎이 밝은 노란색으로 나와서 여름까지 투명한 노란색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Dawyck Purple': 전반적인 특성은 'Dawyck'과 닮았으나 잎이 짙은 자주색을 띠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var. *heterophylla* 'Asplenifolia': 잎이 꼬리고사리속(*Asplenium*) 식물처럼 가늘고 불규칙하게 갈라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둥근 생육형을 가지고 있으며 수고는 약 20m까지 자란다.

2-4-2. *Fagus sylvatica* 'Dawyck Gold' (직립하는 전체 수형)

2-5. *Fagus sylvatica* 'Dawyck Purple' (새로 나오는 자주색 잎)

2-5-1. *Fagus sylvatica* 'Dawyck Purple' (직립하는 가지)

2-5-2. *Fagus sylvatica* 'Dawyck Purple' (직립하는 전체 수형)

2-6. *Fagus sylvatica* var. *heterophylla* 'Asplenifolia'
(꼬리고사리속 식물을 닮은 잎)

2-7. *Fagus sylvatica* 'Luteovariegata'
(잎 가장자리에 발달한 연녹색 무늬)

2-8. *Fagus sylvatica* 'Pendula' (늘어진 가지를 이용한 터널)

2-8-1. *Fagus sylvatica* 'Pendula'
(비스모양으로 늘어지는 전체 수형)

2-9. *Fagus sylvatica* 'Pendula' (자녹색을 띠는 잎과 열매)

2-9-1. *Fagus sylvatica* 'Pendula' (자녹색을 띠는 전체 수형)

2-10. *Fagus sylvatica* 'Purpurea Pendula'
(늘어지는 가지의 자주색 잎)

2-10-1. *Fagus sylvatica* 'Aurea Pendula'
(황금색으로 늘어진 전체 수형)

2-11. *Fagus sylvatica* 'Riversii' (진한 자주색을 띠는 잎)

2-11-1. *Fagus sylvatica* 'Riversii' (진한 자주색의 전체 수형)



- 'Luteovariegata' : 앞의 가장자리에 연녹색 또는 노란색을 띠는 불규칙한 무늬가 발달한다.
- 'Pendula' : 전체 수형이 버섯모양처럼 가지가 아래로 처져서 자라며, 수고 약 18m, 수관폭은 약 10m까지 자란다.
- 'Purpurea' :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자색을 띠는 녹색 잎이 점차 구릿빛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 'Purpurea Pendula' : 'Purpurea'와 전반적으로 닮은 자녹색의 잎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래로 처지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 'Riversii' : 아주 짙은 자주색 잎을 가진 특성이 있다. 🌳

참고문헌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AHS(1997)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p433
 Hillier(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Reader's Digest, p106, p306
 Michael A. Dirr(1987) The Reference Manual of Woody Plant Propagation, Varsity Press, p124
 Michael A. Dirr(1997) Dirr's Hardy Trees and Shrubs, Timber Press, pp156~157
 Michael A. Dirr(1998) Manual of Woody Landscape Plants, Stipes, p371
 Mynah(1997) Botania, Random House Australia, pp368~369
 Nicola Ferguson, Right plant, Right place. A Fireside Book, pp89~98
 Reader's Digest(1997) New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 Flowers, Reader's Digest, pp259~260
 RHS(1999) 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 -2-, DK, pp276~278
 RHS(2001) RHS Plant Finder 2001-2002, DK, p242
 W. J. Bean(1970) Trees & Shrubs Hardy in the British Isles -8th- Vol. 2, John Murray, pp173~184